

현대소설에 나타난 '종군위안부'의 디아스포라와 타자성*

임 은 희**

요약

국내·재의 여성작가의 작품에 형상화 된 종군위안부의 몸의 고통을 추출하여 이러한 고통을 주체화하는 방식과 거기에 드러난 타자성을 규명할 것이다. 종군위안부들은 일시적인 이주의 경험을 통해 틈새적 존재로서 타자의 공간 '위안소'에서 고통을 통해 대상이 아닌 주체로의 변화를 시도하는 과정에는 저항과 탈주의 정신을 드러낸다.

『종군위안부』에는 종군위안부를 죽은 자의 목소리마저 산 자의 목소리로 생생하게 전달하려는 영매로 설정하여 몸을 비워 소외된 다수의 영혼을 채움으로써 복수적인 공간을 생성해내어 내안의 다양한 '타자'와 연대하는 새로운 여성주체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것은 종군위안부의 '고통'을 분유(分有)하여 상호공존의 문제로 풀어내어 다원화된 타자의 시선으로 확장하여 실천하는 주체로 나아간다.

『날아라 금빛 날개를 타고』에는 종군위안부의 고통받는 몸이 치욕스러운 치부가 아닌 역사적인 '고난'에 저항한 '고행'의 징표로서, 고통스런 몸적 주체자인 그녀의 성은 '허여'의 성으로서 타자를 향해 끝없이 베푸는 상호 공존의 태도를 지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는 종군위안부의 몸적 고통에 대한 역사적 피해자성을 지우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 작품에는 저항적이고 탈주적인 헤타로토피아의 장으로서의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는 위안소를 그려냄으로써 민족주의를 횡단하며 주체적인 연대적인 관계로 확장되어가는 재영토화를 보여준다.

『한 명』은 침묵하는 풍길의 증언을 통해 역사의 피해자로서의 고통받는 몸이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6S1A5A2A01025395)

** 한양대 인문과학대학 부교수

아닌 연대적 목적 주체로서 일본 제국주의의 반생명주의에 저항하는 젠더적 연대 행위로 돌봄을 실천하는 자아로 거듭남으로써 생태적 긍정성을 회복하는 생태학적인 성을 지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제어: 종군위안부, 디아스포라, 헤테로토피아, 타자성, 고통받는 목적 주체, 고행, 생태학적인 성, 분유적 주체, 순환적 공생

1. 서론 - 저항의 '헤테로토피아', 고통의 주체자로서의 종군위안부
2. '분유'하는 목적 주체, 수평적·순환적 공생 - 『종군위안부』
3. '고행'하는 주체, '허여'의 성과 상호공존 - 『날아라 금빛 날개를 타고』
4. 반생명에 대한 저항의 주체, 탈젠더화 된 생태학적 성- 『한명』
5. 결론

1. 서론 - 저항의 '헤테로토피아', 고통의 주체자로서의 종군위안부

본고에서는 '고통'을 통해 진정한 인간의 문제를 제기한 레비나스의 물음에서 출발¹⁾하고 있다. 그는 인간 주체성의 핵심을 '고통'으로 보았다. 따라서, 그의 주체와 타자간의 윤리학은 몸의 '고통'에서 비롯되었다.²⁾ 나를 인식하게 하는 것 뿐만 아니라 타자를 인식하게 하는 중요한 작용이 '고통'이다.³⁾ 이러한 고통을 통한 주체화 방식이 바로 종군위안부의 디아스포라와 타자성을 규명하는 중요한 열쇠다. 견고한 프레임에 의해 균일

1) 강연안, 『타인의 얼굴-레비나스의 철학』, 문학과 지성사, 2005, 7면.

2) 강연안, 위의 책, 2005.

3) 손봉호, 『고통받는 인간: 고통문제에 대한 철학적 성찰』, 서울대출판부, 1995, 66면.

화 된 사회와는 차별적으로 배치된 주변화 된 타자의 공간 '위안소'에서 고통을 통해 대상이 아닌 주체로의 변화를 시도하는 과정에는 저항과 탈주의 정신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이는 지배질서를 교란하며 다른 가치와 의미를 지닌 생성의 장으로 변화시킨다.

종군위안부는 식민지배나 전쟁, 민족분단 등 왜곡된 역사적 상황에 의해 국민국가의 법 외부로 쫓겨난 자로서 한국적인 특수성에 규정될 수 있는 넓은 개념의 디아스포라⁴⁾로 규정될 수 있다. 그녀들이 일시적이라고 하지만, 고향이나 모국과 같은 익숙한 장소를 떠나 경제적 존재인 소수자, 이방인으로 차별과 배제를 거듭 받고 산 경험은 매우 중요하다. 이는 장소로 인한 트라우마로 장소에 대한 민감한 반응을 드러내며 그런 만큼 그녀들이 살았던 장소는 그녀들의 정체성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종군위안부들은 일시적인 이주의 경험을 통해 틈새적 존재로서 한국인이지만 일본 황제나 일본이라는 타국을 위해 일본군과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했기에 종군위안부들은 혼성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종군위안부들이 구성하는 공간 역시 혼종적일 수밖에 없다. 종군위안부를 재현하는 작품들에서 그녀들의 회고를 통해 환기하는 공간은 푸코의 헤테로토피아 개념으로 이야기 할 수 있는 지점이 발견된다. 이는 지배 이념에 의해 은폐된 공간이나 소외된 자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한다. 헤테로토피아는 이질적인 요소들이 공존하는 타자의 장이자 반(反)공간⁵⁾이기 때문에 기존의 확고하고 균일한 공간에 틈을 일으킨다. 푸코는 반(反)공간을 정상성을 벗어난, 유토피아와는 달리 실제 존재하는

4) 서경식, 『난민과 국민사이: 재일조선인 서경식의 사유와 성찰』, 임성모·이규수 옮김, 들베개, 2006, 203-206면.

5) 미셸푸코, 『헤테로토피아』, 이상길 옮김, 문학과 지성사, 2014, 48-56면. 푸코는 헤테로토피아를 군대, 신희여행, 요양원, 정신병원, 등 정상성을 벗어나는 타자들의 공간, 혹은 아이들의 다락방처럼 유토피아가 실제 존재하는 공간으로 보았다.

공간으로 보았다.⁶⁾ 이것은 존재 자체만으로 이미 정상이라 명명된 공간들에 맞서 ‘정상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공간인 것이다. 일본인도 한국인도 아닌 이항 대립적 경계선을 횡단하며 이뤄지는 종군위안부는 혼종적인 정체성을 재현하면서 한민족으로서의 재영토화를 시도하지만 그들은 수용되면서도 배제되는 과정을 통해 다문화적 사회를 지향하는 현 한국의 자유민주국가나 민족주의의 작동방식에 대한 균열을 일으키며 반성적 성찰이나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기도 한다. 차별적 시선으로 국민의 주변에 위치 매김되는 잉여적 존재인 종군위안부와 방치된 위안소는 ‘사이’에 놓인 이질성을 내재한 디아스포라의 타자성을 드러낸다. 소수자로서 초국적인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종군위안부의 ‘주체적인 한국인 되기’에는 여전히 편견이 지배적인 한국 사회에 대한 비판을 아울러 보여준다.

따라서, 현대소설 가운데 여성작가의 작품에 형상화 된 종군위안부의 디아스포라와 그녀들의 몸의 고통을 추출하여 이러한 고통을 주체화하는 방식과 거기에 드러나는 타자성을 규명할 것이다. ‘종군위안부’의 디아스포라의 삶에는 ‘고통을 통해서 세계를 주체적으로 경험한 양상이 드러나며, 거기에는 근대적 질서에 대항한 전복성이 내재되어 있다. 이는 90년대 이후 대두된 다문화 담론⁷⁾이 이방인이나 소수자를 향한 소통의 문제에 착안하여 보다 더 다양하게 요구하는 새로운 윤리의식의 모색이기도 하다.

1992년 종군위안부 문제는 <아사히 신문>에서 일면툽기사로⁸⁾로 다뤄지면서 아젠다화 된다. 종군위안부 가운데 생존하는 분들의 녹취록이나

6) 미셸푸코, 『말과 사물』, 이규현 역, 민음사, 2012, 11-13면.

7) 오경석 외 지음,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현실과 쟁점』, 한울 아카데미, 2007, 3-10면.

8) 1992년 1월11일자 신문에는 종군위안부의 문제에 대해 군이 6가지 정도 관여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보고한다. 위안부의 징집, 위생관리, 위안소의 개설, 경영 등이다. 이후 한국과 일본, 미국 등지에서 생존자들의 증언, 녹취테이프 등이 기록된 증언집 등이 다수 출판된다.

증언집 등 그 동안 외면했던 자료들을 통해 중군위안부의 삶은 사회에 폭로되기 시작한다. 중군위안부에 관한 담론적 차원⁹⁾에서는 그 동안 사료집이나 증언집을 통해 중군위안부의 실태 파악과 그들이 당면한 현실문제들을 쟁점화하는데 주력한다. 문화적 차원에서는 영화¹⁰⁾나 소설¹¹⁾ 등 다양한 텍스트 분석을 통해 중군위안부의 문제들을 서사적 특징 안에서 규명하고자 한 논의들이 대다수이다. 이 논의들 가운데 김미영은 문학의 내러티브가 역사의 기술과 달리 중군위안부가 겪은 고통의 경험시간을 어떤 방식으로 분유하였는지를 규명¹²⁾하였다. 변화영은 『중군위안부』에 나타난 서사전략의 장치를 분석하여 중군위안부의 고통과 화해의 서역이 무엇인지를 제시¹³⁾하였다. 이 두 논의는 서사적 측면에서 중군위안부의 고통을 다룬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더 나아가 본고에서는 여성

-
- 9) 이상봉, 『제일 한일의 전후보상운동 전개과정에서 나타난 연대의 특징: 일본군 위안부 운동을 중심으로』, 『21세기 정치학회보』, 21세기 정치학회, 2006, 269-290면, 이유혁, 『이동하는 또는 고통스러운 기억들: 한국인 중군위안부들의 트라우마의 초국가적 이동, 그것의 문학적 재현, 그리고 식민의 망가에 관하여』, 『인문연구』,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제12권11호, 2012, 267-296면.
- 10) 서경숙, 『다큐멘터리 영화에 나타난 한국 중군위안부 여성들의 침묵의 역사 기록하기』, 『인문학 연구』 Vol.35 No.2, 충남대학인문과학연구소, 2008, 107-123면.
- 11) 이귀우, 『〈중군위안부〉에 나타난 샤페르즘과 두 일인칭 서사의 구조』, 『외국문학연구』 31, 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2008, 191-210면, 이경순, 『한국계 미국여성소설과 기억의 문화정치학: 『닥테』와 『중군위안부』』, 『영어영문학21』 Vol.19 No.2, 21세기 영어영문학회, 2006, 69-97면, 권택영, 『기억의 방식과 켈리의 『중군위안부』』, 『미국소설』 Vol.12 No.1, 미국소설학회, 2005, 215-236면, 이소희, 『중군위안부』에 나타난 여성적 말하기와 글쓰기』, 『여성과 평화』 No.4, 한국여성평화연구원, 2005, 216-242면, 이수미, 『『중군위안부』에 드러난 억압적 식민담론』, 『미국학논집』, 한국아메리카학회, 2003, 241-259면, 조성란, 『언어의 힘: 트로마, 침묵, 행위로서의 언어-노라 옥자 켈리의 『중군위안부』 읽기, 언어적 주체성 회복을 중심으로』, 『미국학논집』 Vol.35 No.3, 한국아메리카학회, 2003, 21-42면, 구은숙, 『여성의 몸, 국가권력과 식민주의/민족주의: 노라옥자켈리의 『중군위안부』』, 『영어영문학』 47권 2호, 한국영어영문학회, 2001, 471-486면.
- 12) 김미영, 『역사 기술과 변별되는, 문학의 내러티브의 특성: 한국인 중군위안부 소설을 중심으로』, 『어문학』 Vol.93, 한국어문학회, 2006, 321-344면.
- 13) 변화영, 『『중군위안부』에 나타난 고통과 기억의 의미』, 『비평문학』 51, 한국비평문학회, 2014, 35-63면.

작가의 작품인 『중군위안부』, 『날아라 금빛 날개를 타고』, 『한 명』을 분석대상¹⁴⁾으로 디아스포라로서의 타자화 과정과 고통받은 몸의 주체자로서 나타나는 양상을 통해 규명될 수 있는 중군위안부의 타자성을 시대순에 따라 주목할 것이다. 이 세 작품은 창작 시기나 작가 층도 상이¹⁵⁾하지만 중군위안부들을 재현하는 과정에서 중군위안부의 디아스포라를 ‘고통’의 주체화 방식으로 풀어내고 있으며, 그녀들의 회고를 통해 환기하는 위안소가 푸코의 헤테로토피아 개념으로 이야기 할 수 있는 지점을 드러내며, 타자와의 연대와 공존을 통해 중군위안부의 타자성을 모색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공통으로 노정하고 있다.

군인부대를 따라 여러 공간을 이동하며 생존·생활을 견뎌야했던 ‘중군위안부’의 고통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외국 군인을 상대로 한 성애의 상품화인 창녀로 명명되어 타자화 되고 있다. 외국군인 특히 ‘일본’ 군인을 대상으로 매춘하는 여성 즉 ‘정신대’ ‘근로정신대’ ‘위안부’라는 남근적 질서에 위계화 된 호명방식에 의해 그녀들의 ‘몸’은 여전히 거듭된 배제와 차별전략으로 소외를 거듭하고 있다. 늘 남성성을 보존하기 위해 인간됨을 다하는 남성주체에게 ‘중군위안부’는 위험스러운 존

14) 2000년대 이래 위안부에 대한 삶을 형상화한 작품들은 지속적으로 출판되고 있다. 중군위안부를 소재로 한 여타 다른 작품인 『그날』은 한센병 환자와 위안부와의 사랑을 초점화한 소설이며, 『몽화』는 일제말기를 세 소녀의 각기 다른 삶 안에서의 우정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위안부의 문제를 다룬 『푸른 늑대의 파수꾼』은 한 소년의 시간 여행에서 만난 위안부가 되기 이전의 소녀와의 모험담이 주요서사를 이루고 있다. 『흐르는 편지』는 임신한 중군위안부로서의 삶의 고통을 엄마에게 보내는 편지글 형식에 담아 아이의 생명을 지켜내기 위한 고통을 주요서사로 다루고 있다.

15) 『중군위안부』(1997)의 저자 노라 옥자 켈러는 재미 교포 소설가로서 중군위안부를 다루고 있으며, 『날아라 금빛 날개를 타고』(2006)의 저자 고희정은 정신대연구소 소장을 지낸 실천가로서 자신이 경험했던 이야기를 소설화하였고, 경험한 그들의 이야기를 썼다. 『한 명』(2016)의 저자 김숨은 전문소설가이다. 이처럼 이 작품들은 저자의 역량이 다르지만 중군위안부들을 재현하는 과정에서 중군위안부의 디아스포라를 ‘고통’의 주체화 방식으로 풀어내고 있으며, 타자와의 연대와 공존을 통해 중군위안부의 타자성을 모색하고 있는 문제의식을 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함께 논의할 만하다고 사려된다.

재이다. 미국문화를 부정하기 위해 새로 정립한 민족문화 또한 지적의 '거짓환상'인 민족주의 일 뿐이듯 이런 폭력에 의해 배태된 부정성, 이질성의 코드로서의 '중군위안부'는 남성들에게는 위협적인 대상이었음에 분명하다. 주체인 '그녀들의 몸의 고통'은 '주체'의 목소리가 봉인된 채 '매춘하는 몸의 쾌락'과 '타락'이라는 보편적인 비윤리성으로 매도됨으로써 법이나 국가로부터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주변인으로 내몰린다. 이런 점에서 '이방인'이나 '호모사케르'¹⁶⁾로 간주될 수 있다. '경계선 넘기'는 다문화가 지향한 특징 중 하나¹⁷⁾이다. 주변인인 중군위안부의 디아스포라에는 고통스런 몸적 주체로서 세계를 향한 도전과 응전이 드러난다. 그들의 시선에는 정신을 신체의 도구로 보았던 니체의 모반적 사유¹⁸⁾도 드러난다. '중군위안부'에 대한 몸의 고통을 주목하는 것은 타자화의 방식이자 모반과 전복적 사유를 내재할 타자성을 규명해 낼 수 있는 양면성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중군위안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벗어나 '더불어 함께' 공존하는 다문화적 사유를 드러낸다. 이는 다문화 사회가 지향하는 대안의 메시지¹⁹⁾이자, 다문화주의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모형이 될 수 있다. 특히 본고가 여성작가 작품을 주목하는 것은 중군위안부의 문제가 '여성'이라는 젠더적 의미에서 감내해야 할 이중적인 고통의 문제를 보다 더 잘 천착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군위안부에 대한 고통의 문제를 역사적인 자리매김보다는 한 인간, 한 여성의 문제로 보다 더 진정성 있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논의라 사려된다.

16) 알렉스 머레이 저, 『조르조 아감벤 호모사케르』, 김상운 역, 엘피, 2018, 5-8면.

17) 가야트리 차크라보르티 스피박, 문학이론연구회 옮김, 『경계선 넘기-새로운 문학연구의 모색』, 인간사랑, 2008, 4-11면.

18) 프리드리히 빌헬름 니체 저, 『니체는 망치다』, 정명진 역, 부글북스, 2019, 15-40면.

19) 송현호, 「다문화 사회의 서사유형과 서사전력에 관한 연구」, 『현대소설연구』 44집, 현대소설학회, 2010, 171-200면.

2. ‘분유’하는 몸적 주체, 수평적·순환적 공생 - 『중군위안부』

『중군위안부』(1997)에는 압록강 북부 위안소에 끌려간 중군위안부의 순효가 영매가 되어 샤머니즘이라는 종교방식을 통해 중군위안부의 고통스런 삶을 전달하는 서사방식을 드러내고 있다. 다중인격을 가진 환자가 기억하는 덩어리로 규명²⁰⁾되기도 하지만, 중군위안부의 고통받은 몸을 증언하는 자로 살아있는 자 ‘순효’ 뿐만 아니라 죽은 자의 목소리마저 산 자의 목소리로 생생하게 전달하려는 영매로 설정했다는 점은 주목을 요한다. 생존자들이 증언할 수 없는 어떤 것에 관한 ‘공백’²¹⁾에 살아 돌아오지 못한 중군위안부의 증언도 간과하지 않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이러한 공백을 이 작품에서는 동양적 샤머니즘을 통해 풀고 있다. 이처럼, 중군위안부들이 주체가 되어 그녀들의 고통스런 기억을 생생해낸다는 점에서 보이지 않는 권력에 의해 힘을 갖지 못했던 중군위안부의 고통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제시한다. 그동안 지배이념에 의해 소외되고 배제된 ‘위안소’라는 공간이 새롭게 부각됨으로써 푸코가 제시한 헤테로토피아로서의 장소의 의미로 규정될 수 있다.

중국과 한국의 경계에 놓인 주변적인 공간 ‘압록강 북부 위안소’에서 일본군의 승리를 위해 대상화 된 물건처럼 명명된 이름으로 죽어간 한국인 중군위안부들의 고통의 장소로 부각된다. 사라져 침묵당한 그녀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그녀들의 음성으로 증언할 것인가? 더 나아가 살아 돌아온 자 뿐만 아니라 살아 돌아오지 못한 그녀들의 고통을 누가 위로해줄 것인가?라는 문제까지도 나아가고 있다. 다수의 영혼이 한 몸에 살아가는 해체적 주체를 통해 입을 열지 못하는 죽은 자의 증언을 듣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고통 받고 죽은 자까지도 애도하려는 죽은 자의 ‘고통’까지도 고려하고 있다. 여기에는 가부장제, 남근중심적인 근대권력구조의 균열로

20) 최혜실, 앞의 글, 17-18면.

21) 조르조 아감벤, 『아우슈비츠의 남은 자들』, 정문영 역, 새물결, 2012, 37-45면.

서 그녀들의 '고통'받는 몸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근대권력구조에 배제되어 주변화 된 여성의 문제가 '종군위안부'라는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도 여전히 타자화를 거듭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국가 간의 문제에서 발생하는 권력투쟁에 따른 재배치에 '여성'은 배제되어 있으며, 그러한 투쟁의 장에 향전을 거듭했던 여성의 '고통'의 자리는 증거는 있지만, 고스란히 개인적인 상처로 매김되는 젠더로 위계화 된 '여성'의 현주소를 되묻는다. '고통'받는 여성에 의한 역사는 어떻게 다시 씌어져야 하는가? 이것은 고통받은 몸적 주체자로서 배제된 여성의 역사를 다시 써야한다는 메시지도 담고 있다. 특히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던 때, 허물어져 있는 국가 이상의 고통을 몸으로 견뎌낸 그녀들의 저항의 역사는 우리가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

“일본 황족의 안위를 위해 일본 군인을 대상”으로 한국인인 순효가 일본의 법칙과 규율에 적응해야 하는 디아스포라에서 그녀를 괴롭힌 것은 오랜 세월 그녀에게 강요했던 한국의 가부장적인 가치관인 희생과 순응, 순결이라는 여성이 지켜야할 덕목이었다. 이미 여성으로서 순결을 잃어버린 것은 생명을 잃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생각은 현재 일본이 강요하는 폭력 또한 순결을 지키지 못한 체벌로 자신을 체념하게 한다. 그러나, 혼종적 주체자로서 순효는 인덕이라는 동료의 죽음을 통해 적극적인 삶의 자세로 바뀐다. 인덕은 어떤 말도 해선 안 되는 일본인의 규율과 권력에 맞서 자신은 “한국인”이며 “여자”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당당하게 밝힌다. 그리고 일본군에 의해 명명된 이름이 아닌 자신의 “가족계보”를 밝히며 “한국이름”을 받새 부르며 잔인하게 살해된다. 일본군들은 자신의 규율에 맞서 저항하는 여성을 마치 “통돼지”처럼 구워 잔인하게 살해한다. 이후, 그들은 극도의 공포감을 느낀 종군위안부 여성들을 통제하기 위해 “교환”적 표본으로 사용한다.

예측할 수 없는 타자 얼굴을 대면하는 것은 절대적인 경험이며 절대적 명령²²⁾이라는 레비나스의 언급처럼 그녀의 개죽음과 대면한 순효는 그

죽음의 자리가 ‘아키코41’로 불릴 바로 ‘나’일 수 있음을 자각한다. 세상의 순리가 운명에 순응하며 체념한 삶이라는 가르침대로 산다면, ‘나’는 ‘아키코41’로 명명된 “경매”대상으로 물질화되어 짐승보다 못하게 버려질지 모른다는 현실에 대한 자각은 내면의 균열을 일으킨다. ‘나의 몸은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훼손’되고 있었던 것이고, 손상된 몸에 따라 돈으로 매김되는 ‘입찰대상’이라는 자각에 압록강 위안소를 미친 듯 도망 나온다. 일본군들은 중군위안부 여성을 돈내기 소일거리로 여성의 질을 찢는 내기를 하면서도 죄의식 없이 낄낄댄다거나, 위안부를 향해 오줌이나 정액을 쏟아 넣는 비윤리적인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반하장 격으로 그녀들을 향해 한숨을 쉬는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인다. 이처럼 윤리와 인권이 유린된 채, 일본군에게 온갖 고통을 당하지만 어떠한 목소리도 낼 수 없었던 중군위안부들, 심지어 온몸에 고름이 터지는 질병에 걸려도 약 한번 써보지 못하고 죽은 위안부들 등 일본군의 다형적인 욕망에 의해 철저히 훼손되면서도 목소리가 봉인된 채 짐승보다도 못한 죽음을 맞은 위안부의 고통스런 목소리를 순효는 몸의 언어로 복원시키는 복수적인 공간을 생성해낸다. 인간이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반인륜적 행위가 자행되는 공간에서 미친 듯 빠져나와 살아 돌아 온 순효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자신의 몸을 비우는 일’이다. 자발적이며 몸을 허용하는 능동적인 접신으로서의 순효는 타자를 향해 자신의 몸을 비우는 관용성을 드러낸다. 구천을 헤매는 ‘몸 없는 영혼인 ‘인덕’을 몸 안에 받아들이기 위해서이다. 살아남은 자인 아키코의 몸은 떠돌아다니는 억울한 중군위안부의 유령들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죽은 위안부의 고통까지도 자신의 몸의 언어로 애도²³⁾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 작품에서는 두 영혼이 들어있는 한 몸인 순효의 분열성을 그리기 보다는 고통받은 몸을 지닌 살아남은 자 와 죽은 자가 자신이 겪은 고통

22) 강영안, 앞의 책, 19-40면.

23) 변화영, 앞의 글, 46면.

을 어떻게 위무하며 살아내는지를 집중 조명하고 있다. 따라서, 서로 다른 영혼이 공생하며 유대하는 주체로 거듭나는 새로운 인간형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순효에게 접신한 인덕이 삼신할머니라는 사실은 압록강 위안소를 푸코의 헤테로토피아 장소로서의 의미를 보여준다. 동일한 고통을 겪은 여성의 연대적 저항과 어느 한쪽에 귀속되지 않는 경계적 정체성을 부여하기 위한 작가의 의도적 전략이 드러난다. 중군위안부의 삶 이후 한국이 아닌 제3국을 선택하기 위해 순효는 미국 선교사인 남편과 결혼한다. 그녀는 '하나님'이라는 신을 매개로 복종을 강요하며, 그녀를 성적쾌락의 도구로만 이용하는 남편의 폭력적 행위에 순효는 이중타자화된다. 순효의 몸에 공생한 인덕은 가부장제나 남성 중심적인 근대적 이념에 따른 남성의 폭력에 여러 번 짓밟힌 순효의 고통받는 몸을 치유하는 의식을 행한다. 먼저, 수많은 남성들에 의해 핏물과 상처입은 순효의 몸을 부드럽게 애무한다. 그녀 본래의 상태인 모태의 생명력을 재생하고자 하기 위함이다. 이는 여성을 태초의 자연 상태인 건강한 대지로 회복시키려는 경건한 행위로 볼 수 있다. 모든 내장이 망가져 작은 생명을 가진다는 거 자체가 하나의 기적이 될 정도로 황폐화된 순효의 몸은 "내장은 너무 약하고 망가져 작은 생명을 가진다는 것이 하나의 기적"(30면)일 정도로 훼손된 상태였다. 그러나, 삼신할머니의 혼이 된 인덕의 희생에 의해 순효의 몸은 건강한 생명 베카를 잉태할 정도로 재생된다. 여성의 몸이 만물을 생성하는 대지라는 생태학적인 몸으로 현현된다. 순효와 인덕과의 융합적 주체는 다음 세대인 순효의 딸 베카의 몸에 접신됨으로서 내안의 다양한 '타자'와 연대하는 여성주체로 거듭난다. 이들은 동일성에 저항하고 경계를 넘는 디아스포라적인 인간으로 거듭난다.

순효는 자신의 회복된 건강한 몸을 통해 여전히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채" 침묵당한 '그녀들'의 자리를 자신의 몸을 비워 내어줌으로써 끊임없이 봉인된 '그녀들의 목소리'로 발화한다. 이는 죽은 자들의 고통 또한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넋을 순효의 몸의 언어로 애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순환적으로 재생 가능한 순효의 몸은 인덕의 고통스런 영혼을 애도하며 그에 의한 보살핌을 받는 상호공존의 관계로 융합되어 해체적 주체로 거듭난다. “경계가 사라진”(61면) 영매자가 되어 유동적으로 융합하여 ‘차이’를 만들어내면서 자신이 겪었던 고통의 무게를 ‘분유’하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근대적 사유를 전복한 새로운 인간형의 제시라는 점에서 전복성을 보여준다. 이는 살아남은 종군위안부로서의 순효의 삶은 죽은 자인 ‘그녀들과 함께 살아남아야 한다는 운명공동체로서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혼령인 인덕은 종군위안부의 대항 기억을 주장하고 나아가서는 역사 다시쓰기를 보여주기²⁴⁾도 하지만, 더 나아가 순효의 해체적인 몸은 비움과 채움을 유동적으로 반복함으로써 소외된 새로운 타자를 끊임없이 허용²⁵⁾하며 불러들임으로써 역사에서 배제된 고통받은 몸을 지닌 여성의 연대적 관계를 구축해나간다. 이는 인덕의 혼령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얼굴 없는 억울한 혼령’인 종군위안부, 더 나아가서는 물질적, 정신적, 육체적 결핍 때문에 주변화 된 사람들 즉, 건강을 잃은 사람들, 남편의 바람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겪는 여자들,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부인들, 돈 때문에 고민하는 여성들 등 주변화 된 여성 소수의 목소리도 찾아내어 억울한 그녀들의 고통까지도 위로한다. ‘몸 없는 목소리’들은 가부장체제 하에서 지워진 여성의 삶을 은유화한다. 이처럼 주변화된 목소리도 복원시키는 복수적 공간을 생성해낸다는 점에서 타자성을 드러낸다.

또한, 영매인 순효의 몸은 이승과 저승을 매개하며 봉인된 타자의 언어들 수평적인 세계 안에서 소통한다. 과거와 현재라는 일차원적인 선형의 세계를 벗어난다는 점에서 근대적인 질서를 전복한다. 시골의 아낙이었던 순효의 어머니는 1919년 독립만세운동에 가담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으나, 그는 나라를 위해 싸우다 죽게 되고, 그녀는 그 사건으로 수배

24) 이소희, 앞의 글, 246-254면. 길혜민, 앞의 글, 210면.

25) 이봉지, 『엘렌식수와 여성주체성의 문제』, 『젠더와 문화세미나』,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2004, 12-29면.

대상이 된다. 나라의 독립을 위한 항전의 대가로 그녀는 “한 번도 본적이 없는 남자”와의 결혼을 위해 다른 나라인 설설함으로 강제 추방 된다. 이후 독립을 위한 항전의 대가는 감옥같은 삶을 살아내는 것이었다. 그것은 힘없는 나라를 대신해 일본군을 위한 종군위안부의 지옥같은 삶을 살았던 ‘나의 삶과 유사하다. 어머니, 순효로 이어지는 여성의 고통받는 몸이 바로 항전하는 고통의 역사였음을 의미한다. 이는 남성이 썼던 정복적인 역사와는 전도된 여성 방식의 또 다른 항전의 역사로 재의미화 될 수 있다. 여기에는 ‘삶/죽음’, ‘산 자/죽은 자’라는 이분화 된 경계를 해체하여 원형, 평등, 조화의 세계 추구라는 근대 질서를 전복한다는 점에서 권력 지향적인 일본제국주의에 대한 비판과 근대질서에 대한 모반적 사유를 드러낸다. 이 작품에서는 종군위안부를 디아스포라의 혼종적 주체로 현현함으로써 동양의 사머니즘과 결부된 해체적 주체라는 다원화된 인간형을 제시하였다. 여기에는 권력지향적인 일본이나 수직적인 욕망을 지향하는 근대적 사유를 전복하는 타자성을 드러내고 있다. 종군위안부로서의 고통의 분유가 영매를 매개한 사머니즘이라는 동양적 사유 안에서 ‘산 자/죽은 자’를 수평적인 관계로 치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문화적 사유를 보여준다. 그러나 하위주체인 그녀들의 고통이 타자와의 보다 더 확장된 연대를 통해 함께 분유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드러낸다.

3. ‘고행’하는 주체, ‘허여’의 성과 상호공존 - 『날아라 금빛 날개를 타고』

고혜정의 『날아라 금빛 날개를 타고』(2006)²⁶⁾는 남태평양 군도에 일본군 위안소라는 제3의 공간에 끌려가 종군위안부로 살았던 오마당순이 화

26) 고혜정, 『날아라 금빛 날개를 타고』, 소명출판, 2006. 이후 인용문은 페이지만 기입하겠음.

자인 기자에게 자신의 ‘허물’이라며 내놓은 ‘일기장’을 서사화하고 있다. 여기에는 중군위안부로 살았던 그녀의 몸의 ‘고통’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특히, 중군 위안부의 고통이 몸소 기억하는 자의 시선에 따라 재현됨으로써 권력에 의해 형성된 중군위안부를 향해 ‘매춘부’라고 명명했던 대중의 왜곡된 인식의 균열을 일으킨다. 오마당순이 치욕스럽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과거 즉 ‘허물’을 공개하겠다는 그녀의 고백은 참회라기보다는 주체로서 존재하고 싶은 욕망을 목표로 하는 “또 하나의 권력의지”²⁷⁾로 해석될 수 있다.

빈곤했던 마당순의 가족은 마당순의 희생만을 강요했다. 똑똑한 큰 오빠는 더 잘 키우이기 위해 잘 사는 친척집 양자로 보내졌다. 둘째 오빠 호식은 어리석고 미련한대도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억지로라도 학교에 보내졌다. 마당순은 호식이 오빠보다 더 똑똑하지만, 학교 간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금족령’이 내려진다. 그녀는 일본인 집에 허드렛일이라도 해서 가족 생계를 위한 돈벌이구실을 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래도 곤궁하기만 했던 마당순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 일본으로 이주해야 했다. 이처럼, 남성가부장제 중심의 사회에서 희생을 강요당하며 타자화되었던 여성인물 마당순은 일본으로 가는 도중 강제적으로 제3국인 남태평양 군도의 일본군 위안소까지 끌려오게 된다. 경제적인 빈곤을 피해 모국을 떠나왔지만, 위안소에서 일본군은 그녀의 몸에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일본에 대한 충성을 강요한다. 이처럼 그녀는 고향을 떠나, 자신의 정체성이 뿌리 뽑힘을 경험하며 특수한 디아스포라적 정체성을 경험한다.

“병사들에게 짓밟힌 나의 육신은 밤이면 매일 죽었다.”(240면) 일본인인 ‘아키코’로 살았던 ‘나’는 “밤마다 매일 죽는다. 치욕스런 아키코는 매일 소멸되었다. 아침이면 정글로 왔고 매일 소멸되었다.”(271면) 마당순은 분열된 채, ‘아키코’로서의 ‘몸’은 ‘정글’의 약육강식에 의해 닳아서 소멸되는

27) 가라타니 교진, 『일본 근대문학의 기원』, 박유하 역, 민음사, 2001, 116면.

물질적인 사물로 대상화되었으며, 이런 삶을 벗어나는 길은 '죽음'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성의 순결을 통해 윤리적인 삶을 강요 받았던 남성중심적인 근대적 사유로 “찬물을 뒤집어 쓴 생쥐 꼴”로 “내 몸 위에서는 낯선 병사가 허덕”이는 고통 속에서도 “영락없이 밑구멍을 파는 여자일 뿐”(255면)이라는 자학적 태도로 자신의 생명마저도 스스로 비하하며 체념한다. 늘 “죽음과 탄생이 그렇게 매일 반복”(271면) 되는 자포자기적인 삶의 반복이었다. 성적 학대로 유린된 채 한국인 오마당순은 일본 이름인 아키코로 남태평양이란 제3국의 공간에서 혼종적 정체성을 겪으면서, 현재 폭력으로 점철된 훼손된 몸을 ‘타락’과 ‘치욕’으로 간주한다. 이처럼 그녀는 일본군의 가학적인 성적폭력에 자신의 순결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도덕적 죄의식에 사로잡혀 죽음으로 자신의 결백을 보여주는 것이 자신의 자존감을 지켜내는 것이라는 남성중심적인 근대적 사유를 보여준다.

하지만, 그녀는 “앞으로 바깥 세상에 나가면 세상이 험하기 때문에 수도 없이 뿌리 뽑힐 것이다. 그럴 때마다 달래깨비를 떠올리거라. 아무리 뿌리 뽑혀 오뉴월 띄약벌에 말라비틀어져도 다시 살아나는 달래깨비 말이야.”(63면)라는 할머니의 가르침을 떠올린다. 이러한 의식은 “밟으면 밟는 만큼 더 잘 자라나는 보리싹 같은 존재”(36면)인 생명의 주체로서 거듭난다. 이를 통해 “병사들에게 짓밟힌 나의 육신은 밤이면 매일 죽었”지만, “짓이겨가지고 뭉개진 나의 자존감을 되찾고 아픈 영혼의 상처를 치유하고 죽음의 유혹에서”(240면) 비껴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정분을 교유했던 ‘소오세키’ 즉 ‘오영식’이 양자로 갔던 마당순의 친오빠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오빠인 오영식은 죽음을 택하지만, 마당순은 인간의 금기에 대한 위반조차도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일본군의 반인륜적 행위가 금기된 영역마저 위반할 만큼 악랄해졌음을 의미하지만, 더 나아가 그녀의 고행을 통한 득도가 ‘지모신’의 경지에까지 다다른 것임을 보여준다.

그녀의 폭력으로 ‘고통당한 몸’은 폭력에 맞서 ‘고행하는 몸’적 주체로 거듭난다. 마당순은 “너,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캄캄한 동굴 속에서 백일 동안이나 버틸 수 있겠냐? 그것두 오로지 생마늘만 먹으면서 말이야. 혀가 타구 머리가 어지럽고 죽을 것 같겠지. 그건 꿈을 사람으로 변하게 할 수 있는 만큼의 대단한 고행이니께. 앞으로 니 앞에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이 펼쳐질지도 몰른다. 허지만 니 뱀 속에 웅녀를 담아두고 있으면, 좀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다.”(239-240면)라는 할머니의 말씀을 떠올린다. 이것은 이곳에서 고통을 겪는 종군위안부 여성들이 ‘웅녀’와 같은 한민족의 뿌리를 지닌 ‘우리’라는 동료의식을 일깨워주며, 함께 돌아갈 ‘고향’에 대한 모국의식을 심어준다. 이는 정서적 연대감으로 그녀들을 묶어주며, 함께 생명을 지켜 고향으로 돌아가자는 연대적 관계로 확장된다. 오마당순의 ‘고통’받는 몸은 ‘고행’하는 주체의 몸으로, 소외되고 은폐된 타자의 공간인 ‘남태평양 군도의 위안소’는 생명의 공간, 치유의 공간으로 전복된다. 마당순은 “개죽음” 당할 정도의 폭력에 시달리는 그녀의 동료들을 위무하고 기억하기 위해 “목각인형”을 만들어 애도한다. 이것은 죽은 동료들을 향한 애도 의식이기도 하지만, ‘고통당한 몸’이라는 수동적 행위에서 ‘고행’이라는 능동적이며 주체적 행위로 변이되면서 일본군의 폭력성에 저항하는 모반적 행위로 연대적 행동까지 확장되는 상징적인 행위로 규명될 수 있다.

고행하는 몸적 주체자인 마당순은 같은 고통에 놓여있는 동료들을 위무하는 행위에서 더 나아가 가해자 일본군까지 포용하는 확장된 태도를 보여준다. 그녀는 특공대원인 일본군 야노 하루키가 죽고 싶지 않다며 공포의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며 일본군인의 배설행위가 단지 성욕의 굶주림에 의한 허기진 성적 욕망이기 보다는 엄습된 공포를 비워내기 위한 행위라는 생각의 전환을 가져온다. 그녀는 ‘나’를 가해함으로써 고통을 증대하는 타자인 일본군인 또한 전쟁터에 내몰려 “우리에 갇힌 동물처럼 사육당하며 언제 폐기처분”(218-9면)될지 모르는 ‘우리들’과 다를 바 없음을 깨닫

는다. 마당순은 가해자인 일본군마저 위무하기 위해 향을 피워 애도한다. 이는 남/녀, 가해자/피해자라는 이분법적 근대적 질서의 논리를 전복한 행위로 그녀의 성은 '허여'의 성²⁸⁾ 으로서 타자를 향해 끝없이 베푸는 상호 공존의 태도를 지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녀는 '고통'에서 '고행'의 길을 함께 가는 동료들과 '우리들이' 만들었던 "목각인형"을 커다란 나뭇가지에 아흔 아홉 개를 매단다. 그리고, '우리들은 마치 탐돌이를 하듯 목각인형들이 매달려 있는 소원목 둘레를 돌면서 공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치유의 행위를 한다. 이는 '전쟁'이라는 양육강식적인 수직 지향적 삶에 희생된 '인간'에 대한 애도이자, 평화를 사랑하는 한민족의 주체자로서 수평지향적인 삶에 대한 기원으로 규명될 수 있다. 이는 은폐된 '남태평양 위안소'가 타락이나 퇴폐의 장이 아닌 저항과 항전의 헤테로토피아로 작동되었음을 보여준다.

"2차대전 중 남태평양의 한 섬 연합군 관할 B-4포로수용소 그곳의 조선 출신 여성 포로 스물두명의 기록이 발견된 것은 일년 전이었다. ... 스물 두 명 중 현재까지 살아남은 단 한 명의 생존자가 바로 그녀였다."(330면) 그녀는 "미국 국가기록보존소의 공식문서 속에 오롯이 남아있는 생존자"로 남았다. 일본의 폭력적 행위에 맞서 생명을 지켜 고향에 함께 가기로 했던 디아스포라 종군위안부는 "귀향이 필연이 아니라 망설임이 되는 비극 속에서 할 말을 잃"고 그 어느 곳에도 귀속될 수 없는 경계에 놓인 혼종적인 모습을 드러낸다. 살아온 날보다 아직은 살아갈 날이 훨씬 더 많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종군위안부들은 이미 다 살아버린 노파처럼 앞날을 포기했고, 자신을 체념했다."(321면) "폭풍우에 꽃잎이 떨어지듯 여

28) Parm Morris, 『문학과 페미니즘』, 강희원 역, 문예출판사, 1997, 33면. 모리스는 남성의 경계는 고유성의 경계인 반면, 여성의 경계는 허여성의 경계로 보고 있다. 이러한 경계에 놓인 여성의 속성은여성 자신이 소비한 것을 되돌려 받으려고 애쓰지 않으며, 그녀 자신에게로 돌아갈 수도 없어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한 채 늘 타자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그곳으로 흘러들어갈 뿐이다. 따라서, 여성의 정체성은 타인이 존재하지 않고서는 정의될 수 없는 불확정성을 지니게 되며 이는 '상호 공존의 태도를 지향하고 있다.

자들의 몸이 검푸른 바닷물 위로 낙하”(327면)한다. 영분언니는 갔고, 막 달과 영숙은 남태평양에 남았으며, 덕이는 미쳐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당순이 생존자로서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남태평양위안소에서’의 삶이 성을 매매한 ‘타락’의 시간이 아닌 ‘고행’을 통해 시련을 연마하는 시간이었고, 자신을 의식화함으로써 ‘우리 위안부들’의 항전의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을 발견한 미군에게 마당순은 “나는 매춘부가 아니야. 그들이 우리 몸을 팔고 사는 거래물로 만든 건 사실이야. 그래서 차마 입을 열지 못하게 만든 거고 하지만 난, 난 매춘부가 아니”(306-307면)라며 당당하게 맞선다. 이는 종군위안부’의 고통받는 몸이 치욕스러운 치부가 아닌 역사적인 ‘고난’에 저항한 ‘고행’의 증거였음을 보여준다. 고통당한 몸이 고행하는 몸적 주체자로 거듭남으로써, 종군위안부를 “일본군에 고용된 매춘부”로 간주하려는 어떤 권력이나 목적에 의해 생산된 왜곡된 인식에 대한 저항으로서의 모반성을 보여준다. 물리적 공간이 ‘장소’로 의미화 된다는 것은 인간의 사유와 행위를 통해 인식²⁹⁾되기 때문이다. 이런 과정에서 장소가 작용된다고 할 때, 종군위안부가 몸의 고통을 받은 ‘위안소’는 자명한 기억들을 민족의 힘으로 구성하게 하는 전복의 힘을 지닌다. 이 작품은 일본군 위안부를 제도적으로 비판하는데 머물지 않고 여성연대를 통해 전쟁으로 인한 희생자들의 혼을 위로하며 치유하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³⁰⁾ 이보다 더 나아가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인 일본군마저 포용하여 그들을 위무함으로써 수직적인 삶을 지향하는 인간욕망에서 비롯된 폭력적인 현실보다는 수평적 순환적 세계 안에서의 인간적인 삶을 제시한다.

마당순의 이주의 경험이 고향이라는 한국 안에서 재영토화되지 못하고 여전히 소외와 차별로 타자화를 거듭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작품의 화자

29) 백선혜, 『장소성과 장소마케팅』, 한국학술정보, 2005, 36-40면.

30) 서승희, 『일본군 ‘위안부’의 기억과 재현의 정치-소설 『날아라 금빛 날개를 타고』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72집(20권3호),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6.9, 225-245면.

인 여기지는 고독한 복화술사를 자처하며 중군위안부 마당순과 자신이 “허물을 벗고, 날개를 활짝 펴고 날아오를 날”(223면)을 바란다는 에필로그를 남긴다. 작가³¹⁾인지 화자인지 구별되지 않지만 이 작품은 중군위안부 마당순의 ‘고통’받은 몸이 타락이 아닌 ‘고행’의 시간이었음을 보여줌으로써 ‘그녀’들을 바라보는 잘못된 인식의 허물을 벗겨주려는 작가의 의도적 전략이 내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중군위안부의 몸의 고통을 수평적인 관계로 공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간병인’의 입장³²⁾에서 그녀들의 몸적 고통의 역사적 피해자성을 지우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 작품에는 저항적이고 탈주적인 헤테로토피아의 장으로서의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는 위안소를 그려냄으로써 민족주의를 횡단하며 주체적인 연대적인 관계로 확장되어가는 재영토피아를 보여준다. 이는 현 사회의 지배이념로부터 소외되고 은폐된 공간인 위안소와 왜곡된 중군위안부를 새롭게 바라보는 시각을 추구한다.

4. 반생명에 대한 저항의 주체, 탈젠더화 된 생태학적 성-『한 명』

김숨의 『한 명』³³⁾은 ‘만주 위안소’에서 살아남아 고통받은 중군위안부를 한 인간, 한 여성으로서 치유되지 못한 아픔에 주목하고 있다. 타자와 공유 불가능한 고통의 경험을 겪은 중군위안부인 ‘그녀’가 드러내는 의식과 주체화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중군위안부 김학순이 증언함에 따라 “그

31) 저자 고혜정은 한국정신대연구소 소장이며, 한국 정신대 문제 대책 협의회의 실행위원이다.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들의 증언 등을 출간하며, 현재는 중국 생존자들을 대상으로 다큐를 제작하거나 중국위안부들을 위한 실천적인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32) 일레인 스키테리, 『고통받는 몸』, 메이 옮김, 오월의 봄, 160-165면. 고통은 환자와 간병인처럼 타자와 공유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으로 고통받은 몸을 지닌 인물이 드러날 주체성과 의식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33) 김숨, 『한 명』, 현대문학, 2016. 이후 인용문은 페이지만 기입하겠음.

여자를 따라 위안부였던 여자들이 하나둘 고백을 하기 시작했다. 나도 피해자요, 나도 피해자요, 나도 피해자요, ...”(144면) 마지막 남은 ‘한 명’인 윤금실이 “나는 위안부가 아니야. 나는 윤금실이야. 역사의 산증인 윤금실이야.”(238면)라며 당당하게 자신의 한국 이름 석자를 되찾기까지는 70년의 세월이 걸렸다. 그녀들은 순결해야하는 여성적 가치가 훼손된 “박복한 팔자”를 지닌 타자화 되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타자화 된 그녀들의 행복과 안위를 나라가 보호해주고 되찾아줘야 할 대상들이다. 종군위안부가 역사의 ‘피해자’라는 전제 하에 시작된 이 작품은 종군위안부의 몸의 고통이 ‘트라우마’가 되어 ‘등록하지 못한’ 한 인간, 한 여성의 분열적 삶을 조명하고 있다.

그녀는 “스무 살이 되기 전에 일생을 망쳤다”(239면)고 생각한다. 그래서 70년간을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는다. 음습한 15번가에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숨어살았던 것이다. 70세가 넘은 현재까지도 종군위안부로서 당했던 고통 때문에 스스로 타자화의 길을 걷고 있는 그녀는 철저히 입을 다문 ‘유령’과도 같은 존재이다.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은 사람으로 20대 이후를 살아왔다. 비록 그녀 자신의 잘못이 아니었더라도 “창피스러워서, 너무 부끄러워서”(31면) “바늘과 먹물로 애순의 배에, 불두덩에, 혀에 문신”을 한 일본군에 의해 “낙서장”이 되어버린 그녀의 “수치스러운” 몸을 또한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용서할 수 없었”(248면)다. 그녀 자신도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었기에 그 낙서장이 되어 버린 몸에 대한 고백을 한다면 “집에 영원히 돌아가지 못할까봐.”(242면) 역설적이게도 “집에 너무나 돌아가고 싶어서”였다. 그러나, “죽어서 영혼이라도 돌아가고 싶었던 고향집도 그녀이 집이 되어주지 못했다.”(242면) 그래서 그녀는 음습한 15번가에 혼자 고립된 채 살아왔었다. 그녀는 “살아 돌아온 곳이 지옥”(17면)이어도 “혼자만 살아 돌아왔다”는 죄의식에 스스로 유령을 자처한다.

이처럼 자신의 생명을 방치한 채 살아가지만, 그녀는 음습한 15번가에

떠돌아다니는 길고양이, 비둘기, 강아지 등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를 돌보아준다. 그녀는 배고파 떠돌아다니는 길고양이를 마치 자신이 주인인 양 양파망에 넣어 '늬운이 것'이 되어버리는 것에 대해 지나치지 못한다. 그래서 그녀는 양파망에 들어있는 새끼 고양이를 몰래 꺼내준다. 이는 과거 억지로 끌려 온 한국 소녀들이 "오바상이나 오토상"(77면)이라 불렀던 일본인 업주의 것이 되었던 기억 때문이다. 약육강식의 논리에 따라 생명체를 소유하여 물질로 대상화하는 반생명주의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보여준다. 이것은 자신이 돌보아 준 길고양이가 고마움을 '나'에게 표시하기 위해 다른 생명체를 죽여 갖다 놓는 행위에 대해서도 두려운 맘을 갖게 되는 데서도 드러난다. 한편으로는 가해자인 길고양이도 걱정하는 마음을 드러낸다. 가해자·피해자 그 누구도 힘의 논리로만 작동된다면 세상의 모든 생명들은 소유욕 물질욕의 대상에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녀의 태도는 가해자/피해자, 상/하 등 이분화 된 근대적 시선을 전복하여 어떠한 생명이라도 살려야한다는 범생명에 대한 외경심을 드러낸다. 그녀는 더 나아가 어둡한 골목에 죽어있는 새끼 고양이가 비록 미물이지만 생명체의 죽음에 대해서도 간과하지 못한다. 그녀는 수년전 야끼느라 코 한번 풀지 않은 손수건을 펼쳐 새끼 고양이를 감싸 고양이를 좋은 곳으로 데려다 달라고 빌어준다. 이 또한 모든 생명체에 대한 모성애적 생명보호 의식을 보여준다. 이는 일본 제국주의의 반생명성을 비판하는 동시에 생태적 긍정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타자성을 드러낸다. 살아있는 생명 뿐만 아니라 죽어있는 생명까지도 권리를 인정해주고 그들의 삶을 존중해야 한다는 인간됨의 본질적인 면³⁴⁾에 대한 천착을 보여준다.

그러던 어느날, 어떤 어린아이도 살 것 같지 않은 15번지에 눈과 코는 있는데 "입만 없는탈을 쓴 여자아이"가 유령처럼 나타난다. 이러한 유령의 출현이 "역사의 부정의를 기억하면서 애도를 매개하는 존재"³⁵⁾로도 해

34) 마리아 미스·반다나 시바, 위의 책, 117면.

35) 길혜민, 『일본군 위안부의 유령적 삶과 애도의 가능성 -김숨의 한 명과 노라 옥자 켈러의 종

석되지만 인간이 파악할 수 없는 불가능한 영역에 있는 죽음과 대면하는 존재론적 사건³⁶⁾으로 볼 수 있다. ‘유령’의 모습을 통해 자신의 의식에 갇혀 있던 그녀를 객관화하여 봄으로써 20대 이전에 겪었던 고통을 수용하기 위한 삶의 체험을 보여준다. 그녀가 10대에 끌려갔던 디아스포라 만주위안소는 탈주적인 헤테로토피아의 장으로 작동된다. 그녀는 “입이 없는 여자아기 ‘유령’은 과거 위안부시절에 만났던 친구들...”의 모습으로 드러내며 사라진다. 스스로 살아 돌아온 자신의 생명만을 원망하며 방치했던 그녀는 “만주 위안소”에서 일본의 반인륜적인 폭력 행위에 맞서 “결의 형제를 맺”고, “우리 살아서 고향에 돌아가자”는 목표로 관계적 그물망을 형성했던 가족과 같은 동료들을 떠올린다. ‘유령’으로 등장한 그녀들의 모습 앞에 그녀는 자신의 모습을 객관화하여 보기 시작한다. “그들과 함께 있었던 “만주위안소”는 “목을 매달아 죽고 싶어도 목을 매달 나무 한그루 없는 지옥”(60면) 같은 곳이었다. 일본군들은 그녀들이 가장 듣기 싫어한 ‘조센삐’(삐가 중국어로 여성의 성기를 뜻함)로 그녀들을 명명한 채 “군인 백 명을 상대할 자”로만 취급받는 성적 도구로 취급했다. 따라서, 일본군들은 도구로서 구실을 못한 여성을 ‘몸에 피가 솟구치도록 못을 박는다거나, 여성의 질에 별결게 다룬 쇠막대를 집어넣는’등 무차별적인 폭력을 가하였다. 대상화된 사물로만 취급하던 일본군들은 위안부 “소녀를 죽이는 게 개를 죽이는 것보다 아깝지 않았다.”고 할 정도로 위안부여성을 동물보다도 경시한다. 심지어 일본군들은 ‘위안부들을 변소에 버렸고 죽은 소녀에게는 땅도 흙도 아깝다’하였다.(21면) “하나인 몸뚱이에 수무명이 서른 명이 진딧물처럼” “피를 배불리 빨아 먹은 거머리처럼”(43면)달라붙어 위안부 여성들을 소모하였고, 이들의 무모한 폭력에 그녀들의 아래는 “호박처럼 썩어들었다.”(53면) 삶·생명을 소멸시켜 불모지로 만들어버린 일본제국의 반생명주의는 여성 자체가 소생할 수 있는 자생적인 힘마저도

군위안부를 중심으로, 『역사연구』 33, 역사학연구소, 2017.12, 194-198면.

36) 엘마누엘 레비나스, 『시간과 타자』, 강영안 역, 문예출판사, 1996, 59면.

파괴한다. 심지어 그들은 위안부 여성을 가축으로 물질화하여 “소녀들의 자궁을 마음대로 들어내기도 한다. 소녀들이 임신하면 다시는 임신을 못 하게 태아와 함께”(80면) 이것은 소녀의 몸에 애가 들어서면 갓값도 못 받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일본인들은 종군위안부를 물질화·사물화하여 매매하는 상품으로 전락시킨다. 이는 철저히 반생명주의, 반생태적인 일본군의 모습이다.

이런 일본군에 맞서 몸의 고통을 당한 위안부들간에 ‘결의형제’를 맺는 것은 타자와의 관계가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그 대상과의 그물망 안에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관계적 자아를 깨닫는 것³⁷⁾이다. 이는 일본군의 반생명성에 저항하는 종군위안부의 젠더적 연대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그녀들은 상호보살핌 안에서 서로의 고통을 위무하며 그들의 폭력에 의해 쉽게 빼앗길 수 있는 생명성을 지켜내기 위해 상호 의존하는 유기체적 세계관을 보여준다. 서로간의 협력과 상호 보살핌 속에서만이 그들의 생명이 지켜질 수 있다는 생태학적 여성관³⁸⁾이다. 그녀는 순간 자신이 경시했던 자신의 생명이 그녀들과 함께 지켰던 생명체라는 자의식을 획득한다. 그녀가 강물에 빠져 죽음을 받아들여려는 순간 그녀의 머리끄덩이를 잡아 끌어올리는 손들이 “풍길아 풍길아”를 부르며 그녀가 살아있다고 하늘을 우러러 흐느껴 울었던 가족같은 그녀들을 떠올린다. 그 순간 그녀는 그 어린아이의 종이죽 탈에 막혀있는 입을 “칼끝으로 죽소리가 나도록 긁는다.”(240면) 죽지 않았으니 울지 말라며 금복언니가 당부한 그 말 뜻은 “죽지 말고 어떻게든 살아 있으리라는 당부였다는 걸” 70년이 지난 지금이야 그녀는 깨닫는다. 나의 죽음이 증언할 사람조차 없다는 생각에 죽음조차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마지막 증언자 윤금실의 절망적인 호소에 ‘풍길’ 자신도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생명을 생각하며 그녀와 함께 항

37) 신두호, 『남성과 에코페미니즘』, 『영미문화페미니즘』 9, 한국영미문화페미니즘학회, 2001, 53면.

38) 마리아 민스·반다나 시바, 『에코페미니즘』, 손덕수·이난아 옮김, 창비, 2008, 117면.

전을 멈추지 않았던 가족같은 그녀들을 증언하기 위해 나선다.

김숨 작가는 이 작품은 ‘자신이 위안부라는 사실을 숨긴채 70년을 살아 온 주인공인 그녀가 20세 이전 위안부 시절에 겪었던 끔찍한 경험들과 싸우며 자신의 실존적 정체성과 이름을 찾아가는 과정’³⁹⁾ 을 담고 있다고 하였다. 종군위안부의 고통이 역사적 피해자에서 비롯됐다는 확장된 연대 인식에서 더 나아가 종군 위안부가 ‘누군가의 증언에 따라’ 위안부였던 자신을 ‘피해자’라고 고백하는 타자화 된 시선에 주목하기 보다는 종군위안부가 삶의 트라우마가 된 한 여인이 고통받는 몸의 주체자로 변이되는 과정에서 ‘풍갈’이라는 이름을 되찾는 정체성 획득 과정을 주목한다. 종군 위안부의 고통의 장인 디아스포라 만주위안소는 헤테로토피아의 장으로 작동되어 전복적인 주체로서 현실을 인식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는 젠더성을 초월한 생태학적인 성인식으로 반생명적인 일본제국주의와 근대적인 가부장제에 관한 모반성이다. 범생명주의를 지향하면서 상호보살핌을 통한 유기체적인 생명관을 현현한다.

5. 결론

아우슈비츠에서 살아 돌아온 레비는 아우슈비츠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품위를 잃을 수 있는”⁴⁰⁾ 곳이라고 지적한다. 종군위안부가 체험한 종군위안소야 말고 아우슈비츠와 다를바 없다. 그녀들은 몸의 증거로 그곳의 고통을 증언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타자화되고 있다. 어쨌든, 종군위안부가 여성이라는 점에서 그들의 타자화는 오랜 세월 가속화되었던 거 같다. 본고의 논의는 여성으로서 여성인 종군위안부의 고통받는 몸을 어떻

39) 황병훈 기자, 『“김숨 작가” 위안부 할머니 ‘한 명’ 남아도 고통 잊지 않기를』, 『카톨릭뉴스』, 2016.8.27.

40) 조르조 아감벤, 앞의 책, 105면.

게 형상화하였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지면상, 남성작가에 의해 형상화된 종군위안부의 문제는 차후 과제로 남겨두도록 한다.

여성작가들의 작품에 형상화 된 '종군위안부'의 고통받는 몸은 종군위안부로서의 고통의 문제보다는 디아스포라로서 고통받는 '여성'의 문제를 집중하고 있다. 종군위안부의 고통에 대한 타자화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그녀들의 고통에 관한 증언을 어떻게 서술해야 하는가? 몸의 고통을 당한 그녀들은 어떻게 치유되어야 하는가? 더 나아가 종군위안부로서 그녀들의 고통받는 몸은 역사 안에서 어떻게 매김되어야 하는가? 이 과정에서 고통받는 몸의 주체로 거듭날 때 그 시대를 향한 도전과 응전을 드러낼 타자성을 규명할 수 있다.

재미작가이면서 디아스포라인인 노라 옥자 켈러의 작품 『종군위안부』는 종군위안부를 죽은 자의 목소리마저 산 자의 목소리로 생생하게 전달하려는 영매로 설정하여 몸을 비워 소외된 다수의 영혼을 채움으로써 복수적인 공간을 생성해내어 내안의 다양한 '타자'와 연대하는 새로운 여성 주체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것은 종군위안부의 '고통'을 분유(分有)하여 상호공존의 문제로 풀어내어 다원화된 타자의 시선으로 확장하여 실천하는 주체로 나아간다.

『날아라 금빛 날개를 타고』는 종군위안부 마당순의 '고통'받는 몸이 타락이 아닌 '고행'의 시간이었음을 보여줌으로써 '그녀들'을 바라보는 잘못된 인식의 허물을 벗겨주려는 작가의 의도적 전략이 내재되어 있다. 종군위안부의 고통받는 몸이 치욕스러운 치부가 아닌 역사적인 '고난'에 저항한 '고행'의 징표로서, 고통스런 몸적 주체자인 그녀의 성은 '허여'의 성으로서 타자를 향해 끝없이 베푸는 상호 공존의 태도를 지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는 종군위안부의 몸의 고통을 수평적인 관계로 공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간병인'의 입장에서 그녀들의 몸적 고통의 역사적 피해자성을 지우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 작품에는 저항적이고 탈주적인 헤테로토피아의 장으로서의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는 위안소를 그려

냄으로써 민족주의를 횡단하며 주체적인 연대적 관계로 확장되어가는 재영토화를 보여준다.

『한 명』은 침묵하는 풍길의 증언을 통해 역사의 피해자로서의 고통받는 몸이 아닌 연대적인 몸적 주체로서 일본 제국주의의 반생명주의에 저항하는 젠더적 연대 행위로 돌봄을 실천하는 자아로 거듭남으로써 생태적 긍정성을 회복하는 생태학적인 성을 지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 노라 옥자 켈러, 『종군위안부』, 박은미 옮김, 밀알, 1997.
고혜정, 『날아라 금빛 날개를 타고』, 소명출판, 2006
김숨, 『한 명』, 현대문학, 2016.

2. 논문

- 김미영, 『역사 기술과 변별되는, 문학의 내러티브의 특성: 한국인 종군위안부 소설을 중심으로』, 『어문학』 Vol.93, 한국어문학회, 2006, 321-344면.
구은숙, 『여성의 몸, 국가권력과 식민주의/민족주의: 노라옥자켈러의 『종군위안부』』, 『영어영문학』 47권 2호, 한국영어영문학회, 2001, 471-486면.
권택영, 『기억의 방식과 켈러의 『종군위안부』』, 『미국소설』 Vol.12 No.1, 미국소설학회, 2005, 215-236면.
변화영, 『『종군위안부』에 나타난 고통과 기억의 의미』, 『비평문학』 51, 한국비평문학회, 2014, 35-63면.
서경숙, 『다큐멘터리 영화에 나타난 한국 종군위안부 여성들의 침묵의 역사 기록하기』, 『인문학 연구』 Vol.35 No.2, 충남대학인문과학연구소, 2008, 107-123면.
이경순, 『한국계 미국여성소설과 기억의 문화정치학: 『닥테』와 『종군위안부』』, 21세기 영어영문학회, 『영어영문학21』, 2006, 69-97면.
이귀우, 『〈종군위안부〉에 나타난 샤머니즘과 두 일인칭 서사의 구조』, 『외국문학연구』 31, 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2008, 191-210면.
이봉지, 『엘렌식수와 여성주체성의 문제』, 『젠더와 문화세미나』,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2004, 12-29면.
이상봉, 『재일 한일의 전후보상운동 전개과정에서 나타난 연대의 특징: 일본군 위안부 운동을 중심으로』, 『21세기 정치학회보』, 21세기 정치학회, 2006, 269-290면.
이소희, 『종군위안부』에 나타난 여성적 말하기와 글쓰기』, 『여성과 평화』 No.4, 한국여성평화연구원, 2005, 216-242면.
이수미, 『『종군위안부』에 드러난 억압적 식민담론』, 『미국학논집』, 한국아메리카학회, 2003, 241-259면.
이유혁, 『이동하는 또는 고통스러운 기억들: 한국인 종군위안부들의 트라우마의 초국가적 이동, 그것의 문학적 재현, 그리고 식민의 망각에 관하여』, 『인문연구』,

제12권11호,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2, 267-296면.

조성란, 『언어의 힘: 트로마, 침묵, 행위로서의 언어-노라 옥자 켈러의 『중군위안부』 읽기, 언어적 주체성 회복을 중심으로』, 『미국학논집』 Vol.35 No.3, 한국아메리카학회, 2003, 21-42면.

3. 저서

가야트리 차크라보르티 스피박, 『경계선 넘기-새로운 문학연구의 모색』, 문학이론연구회 옮김, 인간사랑, 2008.

가라타니 고진, 『일본 근대문학의 기원』, 박유하 역, 민음사, 2001.

강영안, 『타인의 얼굴-레비나스의 철학』, 문학과 지성사, 2005.

니콜러스 로일 지음, 『자크 데리다의 유명들』, 오문석 옮김, 2007.

마리아 민스·반다나 시바, 『에코페미니즘』, 손덕수·이난아 옮김, 창비, 2008.

미셀푸코, 『말과 사물』, 이규현 역, 민음사, 2012.

_____, 『헤테로토피아』, 이상길 옮김, 문학과 지성사, 2014.

백선희, 『장소성과 장소마케팅』, 한국학술정보, 2005.

손봉호, 『고통받는 인간: 고통문제에 대한 철학적 성찰』, 서울대출판부, 1995.

서경식, 『난민과 국민사이: 제일조선인 서경식의 사유와 성찰』, 임성모·이규수 옮김, 돌베개, 2006.

알렉스 머레이 저, 『조르조 아감벤 호모사케르』, 김상운 역, 엘피, 2018.

엘마누엘 레비나스, 『시간과 타자』, 강영안 역, 문예출판사, 1996.

일레인 스킨리, 『고통받는 몸』, 메이 옮김, 오월의 봄, 2018.

오경석 외 지음,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현실과 쟁점』, 한울 아카데미, 2007.

조르조 아감벤, 『아우슈비츠의 남은 자들』, 정문영 역, 새물결, 2012.

Pam Morris, 강희원 역, 『문학과 페미니즘』, 문예출판사, 1997.

프리드리히 빌헬름 니체 저, 『니체는 망치다』, 정명진 역, 부클북스, 2019.

<Abstract>

The Diaspora and Otherness of “Enforced Sex Slaves Following the Army” in Modern Novels*

Im Eun-hee

This study will focus on the discriminating ways at the cracking points in the painful bodies of enforced sex slaves following the army including the boundary viewpoint of enforced sex slaves following the army that experienced diaspora and the embodiment methods of otherness in the process the “enforced sex slaves following the army” of diaspora explored with others in works by Korean American or Korean writers.

In *Enforced Sex Slaves Following the Army* by a Korean American writer, Sun-hyo has a body of symbiosis to hold different souls. The book reveals cracks in the human shape defined by the dichotomy of one body, one soul, thus having overturning nature. By showing a cyclical viewpoint of the world to regard women as land creating everything or nature, the book calls many women excluded and deleted within the male order, mourns them, and shows the reconstruction of the history of the silenced “women.”

In *Fly on the Gold Wings* by a Korean author, an enforced sex slave following the army reveals her diary like their own “skin” to the world and shows that her gender as the subject of her painful body is oriented toward an attitude of mutual existence to give others endlessly as the

41)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2016S1A5A2A01025395)

gender of “grant.” Based on the restored memories of Madangsun, the painful body of the enforced sex slave following the army is the proof of “penance” to resist the historical “hardship” rather than shameful embarrassment.

The “brothels for the troops” where these women were killed are substituted as places of life and healing. In *A Person*, Pung-gil that used to remain silent starts to give testimony. His testimony demonstrates that the enforced sex slaves following the army were oriented toward life to overturn anti-life Japanese imperialism where the dichotomous modern order between victims and assailants was dominant, transcending their position as victims.

Enforced sex slaves following the army are marginalized in “cracks-gaps” and the subjects of painful bodies. Described in the works by the Korean author, enforced sex slaves following the army reveal otherness oriented toward life as ecological gender. The works by the Korean American author, on the other hand, depict them as mixed subjects and advance to the reconstruction of the history of the silenced women.

Key words: Enforced sex slaves following the army , Diaspora ,Heterotopia, Otherness, The subjects of painful bodies, Penance, Ecological gender, Mixed subjects, Cyclical Symbiosis

투 고 일 : 2019년 8월 25일

심 사 일 : 2019년 8월 27일-9월 10일

게재확정일 : 2019년 9월 10일

수정마감일 : 2019년 9월 26일